

육지 나들이 손수레 이용하세요

신안군, 목포항여객터미널에 비치 섬주민 도움

목포항여객터미널에 소형 손수레(사진)가 등장, 주민 불편 해소에 한 끊을 하고 있다.

신안군은 여객선을 타고 오가는 주민들이 무거운 짐을 손쉽게 옮길 수 있도록 소형 손수레(핸드카) 30 대를 구입, 여객터미널에 비치하고 전담 직원 2명까지 배치해 주민들의 육지 나들이를 돋고 있다.

이 소형 손수레는 박우랑 신안군 수ğa 군민들이 농수특산품과 생활 필수품을 힘들게 운반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부에 와닿는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비치도록 한 것.

박우랑 군수는 “무거운 짐을 들고 여객선으로 섬과 육지를 오가는 일 이 노약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손수레 제공을 생각하게 됐다”면서 “현장을 직접 뛰며 주민 애로



사람 등을 파악하고 개선해 살맛 나는 신안을 건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안=조윤남기자 wncho@



양파 모종 이식 바쁜 손길

양파 주산지인 무안과 함평지역에서는 요즘을 양파 모종 이식작업이 한창이다. 무안 양파는 이식후 6개월후인 내년 5월께 수확한다.

/연합뉴스

하당지구 교통신호체계 개선 급하다

전남 도청 이전·대불산단 활성화로 교통량 급증

연동화 안돼 체증 가중…가변차선제 운영도 절실

전남 도청 이전과 대불산단 활성화로 영산강 하구둑 일대의 교통 체증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도로와 신호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출·퇴근시간대면 하당지구까지 차량이 밀리고 있으나 하당지역 교차로의 교통신호 연동화가 늦어지면서 정체를 부채질하고 있다.

목포~영암간 영산강 하구언 구간은 퇴근시간대인 저녁 6~7시사이에 1만7천여대의 각종 차량이 몰리면서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빚고 있다.

이어 따라 통행량에 따라 신호를 조절하는 교통신호연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산강 하구언의 중앙분리대와 인도

를 차도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

력을 얻고 있다.

목포시는 시내 주요 도로 11곳에 대해서는 교통신호를 연동화했으나 정작 교통체증이 심각한 하당 지역의 경우 연동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하당지역 일부 교통신호 제어

기는 사용연한 10년이 경과된 노후 기종으로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목포시내 중앙로 등 13개구간에 대해 작년 말까지 연동화 개선 사업을 마쳤고, 올해 말까지 6개구간에 대한 추가 개선을 시예 요청했다”면서 “출·퇴근시간대에는 교통경찰이 수작업으로 원활한 소통에 나서고 있으나 늘어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하당지역의 경우 교통 신호가 지나치게 많아 교통 체증이 심화되고 있다”며 “영산강 하구언의 중앙분리대와 인도를 차도로 만들어 가변차선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포=이상휴기자 lsh@

목포대교 건설사업 탄력

정시장 “예산증액 성과”

목포대교 건설사업 예산이 증액될 것으로 보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지난 13일 국회를 방문, 의원들을 대상으로 목포대교사업의 당위성 등을 설명, 예산증액에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정시장은 주승용(열린우리당), 윤두환(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및 박계동(한나라당)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이낙연(민주당) 의원을 면담, 기획부서에 국회에 심의 요구한 내년도 목포대교 건설사업비 400억원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500억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들 국회의원들은 목포신항의 물동량 증가로 목포대교의 조기 개통이 필요 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사업비 증액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정시장은 주승용(열린우리당),

윤두환(한나라당) 건설교통위원회

이번 나눔장터에는 가전제품을 비롯해 의류와 가방, 신발, 그릇, 완구, 도서 등 생활용품을 판매해 이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된다.

또 부대행사로 향토농산물 및 깊공예품 전시·판매전도 열릴 예정이다.

/무안=이원희기자 whlee@

서남권 광역 교통망 구축 조기 시행 건의

전남도, 건교부 등에

전남도가 혁신도시 건설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서남부 지역 광역교통망 체계를 대폭 손질키로 했다.

도는 16일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영산강 하구둑 국도 2호선과 나주~목포 국도 1호선의 원활

한 교통소통을 위해 삼향~청호~삼호와 고하~죽교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사업의 조기 착공을 요청했다.

또 광주에서 남아 신도시까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현재 설계를 마치고 발주 준비중인 나주~동강간 국도 23호선을 확장해 줄 것과 일로~동탄간 국지도 49호선 등을 조기 착공해 줄 것도 함께 건의했다.

이와 함께 서해안고속도로를 진도까지 연장하고,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와 화원관광단지의 간선도로 역할을 할 서남해안 일주도로인 국도 77호선 압해~화원간 조기 착공을 요청했다.

이밖에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국제공항 경유 및 오송·목포 간 전 구간 동시 착공과 2015년 준공, 목포~군산 간 철도 건설, 영암·삼호~이성간 철도를 삼호~대불국가산단~목포역으로 노선을 변경해 줄 것 등도 건의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기술사 11월 18일(토) 6시

기술사 김우식 원장 총 100명 합격시킴!

드디어 본원에서 김우식 원장님을 초빙하였습니다. 내년 2월에 합격하시는 기회를 잡으세요!!

◆ 김우식 원장 김의내용 ◆ 특강 및 모의고사반

◆ 건축·토목시공 기술사 4,085명 합격시킴!

◆ 2006년 8월 20일(화) 시험에 건축·토목시공기술사 284명 합격시킴!

◆ 김우식 원장 김의내용 ◆ 특강 및 모의고사반

광주건축 토목학원

단계별로시 할인혜택

062) 512-5400

www.21ki.co.kr

국비지원 과정 개설

• 재직자과정(회사원급)

• 근로자과정(개인회원급)

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

믿고 파십시오

안심하고 사십시오

위탁판매 하십시오



• 타회사보다 무조건 더드립니다.

• 바로 이전 바로 현금 자급

• 고급 승용·수입차·RV·승합

화물·중기·특장차 “전차종 매입”

• 1톤 개인용차, 4.5톤 개별화물 급구

• 설정·압류차량 매입 비로 이전

• 전차종 할부판매

• 차량구입비·이전·보험

무이자 전액할부 판매

• 돈없이 신용 하나로 구입

• 당일 출고 5천이내,

3개월 무상 A/S보장

• 차량금액 원하는 가격받기 원활해

• 위탁을 할 경우 차량가격에 계약금 10%를 고지받기에게 지금

• 1개월 안에 무조건 판매판후 이전시류 밟음

• 1개월 안에 안 끌리면 계약금액에 전액배상

• 계약서 작성시 법인 계약서로 작성 민·형사상 효력정립 있음

판매후 수수료 2.2%만 지급

010-8427-9997 (유)홍길동 자동차 매매상사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223-1140, 3210 100 011-012-2532
(광주은행 신본점, 대인동 소방서간판)

인애공인중개사

한 011-642-0391

횟집임대

• 고급횟집 허설분양형

• 횟집으로 성공하실분

• 1층 2층 130평 터자 42석

• 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

부근

• 임대내용은 횟집 보고 상담

일가공인중개사

한 (02) 234-0216 한 011-009-0896
(광주은행국부)

상가부지 및 신기부지

• 통장 대지 50평 1층건물 28평

• 통장 대지 110평 4층 27평

• 금남로 도로 100평 20평

• 신도시 대도로 120평 20평

• 금남로 대도로 200평 20평

• 광주광역시 120평 20평

• 주도 100평 20평